

대곡~소사 복선전철 7월 1일 개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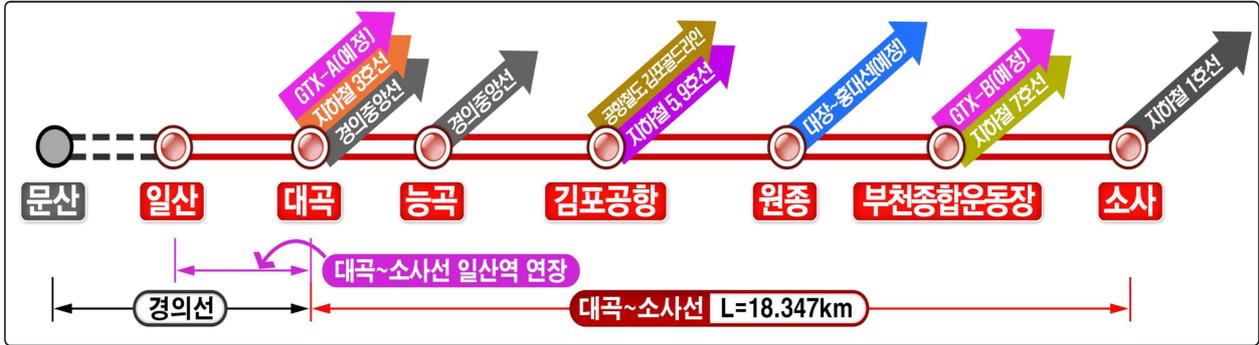
- 경기 서북부지역 종단 전철 연결로 교통 소외 해소
- 고양에서 부천간 이동시간이 67분에서 19분으로 48분 단축, 수도권 30분대 출·퇴근 교통망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30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대곡~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을 개최하였다.
 - * 정부, 지자체, 건설공사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700여명 참석
 - 대곡~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역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사업으로, 7년간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'23년 7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.
- 대곡~소사 복선전철 개통으로 그간 단절되었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,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역, 부천종합운동장역 등에서 환승하여 여의도·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통학·출퇴근이 가능해진다.
 - 향후, '24년 개통하는 GTX-A 대곡역과 내년 착공하여 '30년 개통하는 GTX-B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되어, 수도권 서부지역은 철도 소외지역에서 철도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.
 - 이에 더해,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(송산~홍성), 신안산선(송산~원시)이 '25년까지 개통되면 경기도 일산부터 충청남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서해안 지역의 이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에 개통하는 대곡~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철도 소외지역을 새롭게 이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편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”라고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배한후 (044-201-3968)
			주무관	권택규 (044-201-3965)

참고 1

대곡~소사 복선전철 사업 개요



□ 사업현황

- 사업내용 : 대곡~소사 복선전철 건설(18.4km)
- 총사업비 : 1조 5,557억원(민자 13,376억, 건설보조금 1,427억, 국고 754억)
- 공사기간 : 2016. 6. ~ 2023. 6.(착공일로부터 84개월)

□ 사업효과

- 그간 소외되었던 경기 서북부 지역(고양-강서-부천)에 새롭게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(15만명/일)
 - 고양-서울 강서-부천간 이동시간이 큰 폭 단축(67→19분, 48분 단축)
 - 타 노선 연계를 통해 서울까지 30분이내 출·퇴근 가능
- 동 노선 개통과 함께 서해선(송산~홍성, '24.末), 신안산선(원시~송산, '25년.上)이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와 충남을 잇는 핵심교통망으로 기능
 - * 철도 경부축, 동해축에 이어 서해축이 완성되는 효과
- 향후, GTX-A('24년 개통 예정) 대곡역, GTX-B('30년 개통 예정) 부천종합운동장역, 대장홍대선('31년 개통 예정) 원종역 환승으로 지역발전 촉진

참고 2

대곡~소사 노선도

